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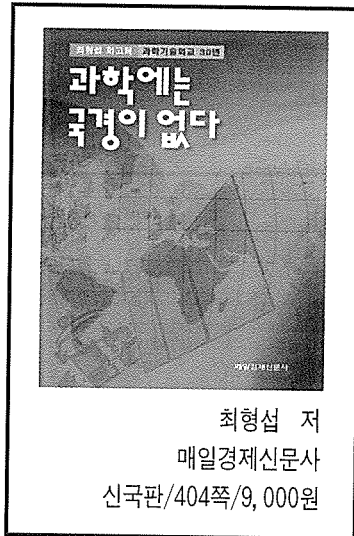
본격적 의미의 연구개발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마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된 1960년대 중반 이후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연구개발 투자면에서는 이제 세계 7위, 연구개발 인력도 세계 10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투입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동안 우

리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도 결코 외형적 성장에 뒤지지 않았다. 연구개발의 산출물인 학술 논문, 특허 등의 최근 신장율도 어느 나라 보다 높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전체의 1%를 약간 상회할 정도에 불과할 뿐, 나머지 99%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연구개발의 산물인 과학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위치는 더욱 미미해진다.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우리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없다.

사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자금자족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즉,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 못지않게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어렵다. 나라마다 다른 과학기술 수준, 문화, 관행,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력은 많은 경험과 고




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형섭박사가 35년에 걸친 국제 과학기술 활동경험을 정리한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매일경제신문)는 원로 과학자의 단순한 회고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KIST창립 소장, 우리나라 초기 과학기술 기틀을 마련한 과학기술장관 그리고 원로 과학기술자로서 폭넓은 경험을 쉽고도 흥미있게 정리하였다.

이 회고록에서 저자는 과학기술 정책 책임자로서 그리고 전문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산업,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대일 기술의존이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기술도입 다변화를 위한 노력, 동남아 시장, 중동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등을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설명, 색다른 의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개도국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저자가 이들 국가를 위한 정책 자문, 지도 등 풍부한 경험을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어 개도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 회고록은 과학기술인, 정책입안자, 학생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정성철 (STEP1 국제협력단 단장)